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집니다.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어렵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I. 반대되는 주장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생명을 걸고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 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을 체포해다 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6 : 63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은 것은
‘네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이나?’하고 묻은 것입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사람들도 긴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신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6 : 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똑 같은 존재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예수님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노발대발합니다.

마태복음 26 :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참람하다는 말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형 언도를 하고 죽이라고 내어 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을,
유일신(唯一神, monotheism)을 가르치지 않고, 다신론(多神, polytheism)을 가르친다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다신론은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같은 다른 여러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이 취급하는 다신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뿐이라는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신으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쉼이라고 하여 매일 아침마다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라고 암송합니다.

신명기 6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셨는가요?

예수님이 다신론을 주장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요한복음 17 :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뿐이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6 에서 하나님은 한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 : 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길,
야고보서 2 :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구약의 유일신론과 모순되지 않는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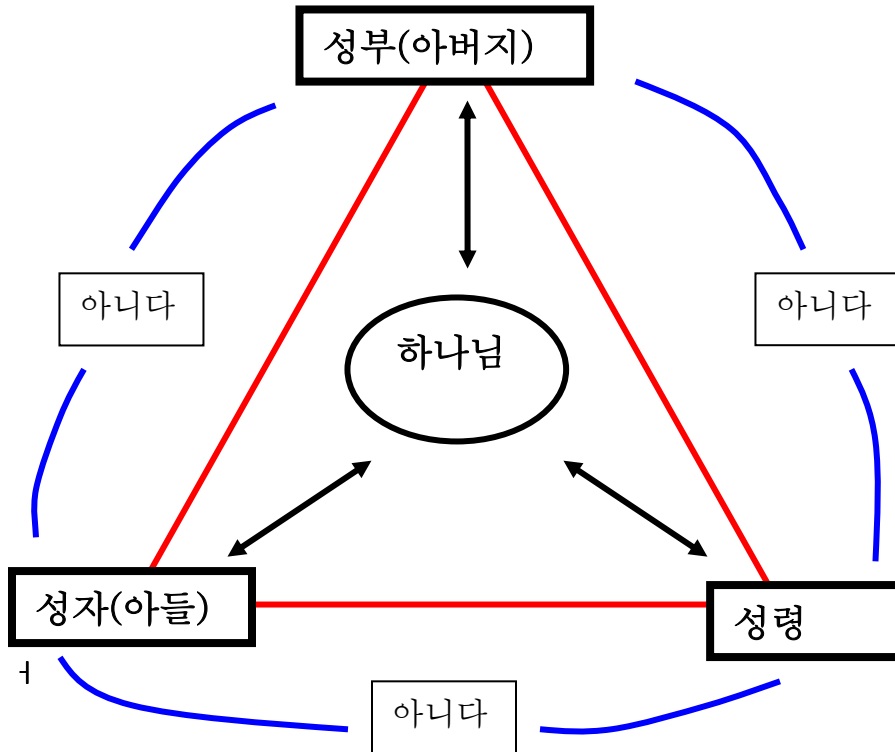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도표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인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유일신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삼위의 하시는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 :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은 예지에 의해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그의 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예정에 의해구속된 자들을 거룩케 하십니다.

One Substance, three Persons.

‘하나’의 본체와 ‘셋’의 위격



유일하신 참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마치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빛이 나오하 세상을 밝혀줍니다.

또 빛에서는 열이 나와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태양에서 빛이 발산되고, 빛은 세상을 밝혀 주고¹, 빛에서는 열이 나옵니다.

태양 안에서 발광체와 빛과 열은 하나입니다.

발광체와 빛과 열은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박 xx 집사는,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교회오면 집사이고, 직장에 가면 사장이다.

¹. 빛은 단일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보자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음이 차이이다

아버지와 집사와 사장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틀리는 이유는 이런 주장은 아버지와 집사는 같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부 하나님도 같이 죽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군주론적 삼위일체라고 하며 교회사에 실제로 있었던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구약을 들어 반대하지만,

II. 저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구약의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이 메시아의 신성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메시아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 9 :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 :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6 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아기와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모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 대하여는 모두 신성으로 묘사됩니다.

이 아기에게는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모든 신적 명칭이 부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이 아기는 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7 절에서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고 합니다.

메시아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말합니다. 인간적 유대 나라의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영원한 하늘 나라의 복음의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예언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III.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1.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4 세기경에 아리우스 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 중에 지극히 높은 천사이다. 지극히 높은 피조물의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아리우스 주의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아리우스 주의는 니케아 종교회의 후에 교묘한 정치 운동으로 망령처럼 살아 일어나, 온 교회가 아리우스 주의 화되어 갔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단화되어 갈 때 이 아리우스에 반대하여 싸운 정통 신앙의 투사가 아타나스우스입니다. 그 때는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면 유배를 가야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거의 평생을 유배생활 하면서 아리우스 주의 이단과 싸웠습니다. 그후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리우스가 죽고 아리우스 주의는 이단으로 다시 정죄되었습니다.

이 때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이어야만 한다.”

종이 우리를 구속하였으면 우리는 종이 되지 주인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의해 죽었으면 우리는 잘되봐야 천사의 반열에 드러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것입니다.

얼마나 자명한 주장입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 :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2.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없으시면 부활도 없고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과 예수님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언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신성이 선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은 삼위일체 안에서 제 2 위 성자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내세의 소망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 :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린도전서 15 :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 :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 예수님이 신성이 없으시면 우리 성화는 헛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새사람의 형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마음 속에 모신

예수님을 닮아 하늘에 속한 새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늘의 형상을 따라 변화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일신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모두 구약의 유일신을 공언하였으며, 그 신앙을 예수님과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 주심까지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일신론에 대한 발전적인 신선한 표현으로, 과거의 하나님에 뿌리를 두고

과거의 하나님과 모순되지 않는 유일신론 개념을 완성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론은 과거의 하나님을 포함하며,

과거를 넘어 현재의 개인의 인격과 교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위대한 영광스런 유일신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